

필사



손자
병법

일러두기



1. 이 책은 우리말을 필사하도록 구성했으며 필사할 부분은 산돌증수무원록 서체로 구분했습니다. 한자 원문과 독음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책에 사용한 원문은 『손자병법대전』으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 일부 수정했습니다.
3. 본문에서 기억할만한 주요 문구나 단어는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모던타임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필사



손자
병법

손끝으로 흡수하는 싸움의 지혜

노병천 기획
김재용 옮김

모던타임스



들어가며 _006

이것만은 알고 쓰자 _008

제1편 · 시 계 : 싸우기 전에 계획하라 _011

제2편 · 작전 : 속전속결하라 _025

제3편 · 모공 : 싸우지 않고 이겨라 _037

제4편 · 균형 : 이길 태세를 갖춰라 _049

제5편 · 병서 : 정공법으로 맞서고 변칙으로 이겨라 _059

제6편 · 허실 : 주도권을 장악하고 약점을 파고들어라 _071

제7편 · 군쟁 :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곧장 가는 길을 택하라 _089

제8편 · 구변 : 다양한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라 _105

제9편 · 행군 : 이동하고 머물 때 살피며 행동하라 _115

제10편 · 지형 : 환경에 따라 전술을 달리하라 _141

제11편 · 구지 : 높은 곳에 오르게 해서 사다리를 치워 버려라 _159

제12편 · 화공 : 불로 공격을 도와라 _199

제13편 · 용간 : 첩자를 이용해 적을 파악하라 _211

들어가며

『손자병법』을 아는가?

단 한 번이라도 『손자병법』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도 원문을 중심으로 말이다.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렇게 한 사람은 손꼽을 정도일지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이긴다”는 말을 알고 있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은 없다. 제3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생각보다 우리는 『손자병법』을 잘 모른다.

싸움에 관한 지혜의 정수

『손자병법』은 어떤 책인가? 2,500여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경영, 사회, 심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질긴 생명력으로 본다면 성경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역작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싸움은 계속되었고 경쟁을 피할 길이 없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기업인은 경영 현장에서, 일반인은 삶의 터전에서 싸우고 경쟁한다.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겨 원하는 것을 얻을까? 놀랍게도 『손자병법』은 이런 질문에 관한 거의 모든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다. 싸움에 관한 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 가운데 이보다 완벽한 책은 찾기 어렵다.

새로운 번역과 구성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손자병법』 원문은 6,109자에 불과하다. 국내에 출간된 『손자병법』에 관한 대부분의 책은 원문을 직역한 다음 긴 해석을 덧붙여 분량을 늘인 것이다. 이 책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원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군더더기를 싹 걷어낸 것이다. 그 대신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다. 『통으로 읽는 논어』의 저자이자 대안학교에서 논어를 가르치는 김재용 선생이 이 작업을 해주었다. 여기에 필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 『손자병법』의 깊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했다.

완벽한 필사용 텍스트, 『손자병법』

필사를 하면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든다. 한 자 한 자를 적을 때마다 감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한다. 『손자병법』은 단순한 병법서가 아니다.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낸 문학 작품이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 최초의 문학 비평가인 유협은 『손자병법』을 두고 “문장이 아름다운 구슬과도 같다. 어찌 병법을 연마한다 해서 문학에 뛰어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으랴!”라며 감탄했다. 그야말로 필사를 하기에 완벽한 텍스트가 아닌가! 이 책 『필사 손자병법』을 통해 『손자병법』에 담긴 놀라운 통찰과 필사의 재미를 제대로 맛볼 것을 권한다.

기획 · 감수자



이것만은 알고 쓰자

손무와 『손자병법』

『손자병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손무가 지은 책이다. 널리 알려진 손자라는 이름은 공자나 맹자처럼 손무를 높여 부르는 이름이다. 손무는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권력 다툼으로 제나라가 혼란해지자 오나라로 망명했다. 지금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성에 은거하던 손무는 그곳에서 『손자병법』을 집필했다. 당시 오나라는 이웃 초나라와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새로 즉위한 오나라왕 합려는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측근인 오자서의 추천으로 『손자병법』을 읽은 오나라왕 합려는 손무의 군사적 식견에 감탄했다. 그래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손무를 초청해 궁녀 180명을 내어주면서 지휘를 해보게 했다. 왕의 요청을 받은 손무는 궁녀들을 2개 부대로 나누어 왕이 가장 아끼는 궁녀 두 사람을 부대장으로 세워 명령을 내렸다. 처음에 궁녀들은 지시에 따르기는커녕 키득거리며 장난을 쳤다.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손무는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별로 나아지는 기

미가 없었다. 그러자 손무는 부대장 역할을 하던 두 궁녀를 처형했고 다른 궁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눈앞에서 왕의 애첩들이 죽는 모습을 본 궁녀들은 웃음기를 지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합려는 분노했지만, 손무의 통솔력을 인정하고 그를 장수로 발탁해 군을 맡겼다. 이후 손무가 이끈 오나라 군은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 서쪽의 강대국인 초나라를 제압했고,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협했다. 손무는 자신의 군사 지식과 철학이 탁상공론이 아님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손자병법』의 핵심 메시지

『손자병법』 총 13편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으로 압축된다.

첫째,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부전승사상’이다. 백 번 이기더라도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불가피하고 국가 재정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전쟁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의 책략을 좌절시키는 ‘별모’”고 “가장 나쁜 방법은 적의 성을 공격하는 ‘공성’이다”라고 했다.

둘째, 일단 싸움이 나면 신속히 끝낸다는 ‘단기속결사상’이다. 전쟁을 하려면 많은 병력과 군비가 동원된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경험했듯이 전쟁을 오래 끌면 그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교전국에 돌아간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속한 승리가 귀하다”고 했다.

셋째, 준비와 실행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만전사상’이다.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좌우되는 큰일이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계책이 많으면 이기고 계책이 적으면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 제1편 ◀

시계

／
싸우기 전에 계획하라

손자가 말했다.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다. 삶과 죽음이 달려 있고
존립과 멸망이 갈리는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 요소인 ‘오사’를 헤아리고
계책을 따져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는 ‘도’라고 하고,
둘째는 ‘천’이라고 하고,
셋째는 ‘지’라고 하고,
넷째는 ‘장’이라고 하고,
다섯째는 ‘법’이라고 한다.

손 자 왈
孫子曰：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兵者，國之大事，死生之地，存亡之道，不可不察也。

고경지이오 교지이계 이색기정
故經之以五，校之以計，而索其情，

일왈도 이왈천 삼왈지 사왈장 오왈법
一曰道，二曰天，三曰地，四曰將，五曰法。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lines.

‘도’는 백성이 군주와 뜻을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니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천’은 맑고 흐림, 추위와 더위, 사계절의 변화다.

‘지’는 높고 낮음, 멀고 가까움, 험하고 평탄함,
넓고 좁음, 죽을 곳과 살 곳이다.

‘장’은 장수의 지혜, 믿음, 여집, 용기, 엄격함이다.

‘법’은 군대의 편성, 규율, 보급이다.

무릇 이 다섯 가지는 장수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니
이를 아는 자는 이기고 모르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

도자 영민여상 동의야 가여지사 가여지생 이불외위야
道者, 令民與上同意也, 可與之死, 可與之生, 而不畏危也.

천자 음양 한서 시제야
天者, 陰陽, 寒暑, 時制也.

지자 고하 원근 험이 광협 사생야
地者, 高下·遠近·險易·廣狹·死生也.

장자 지신인용 엄야
將者, 智·信·仁·勇·嚴也.

법자 곡제 관도 주용야
法者, 曲制·官道·主用也.

범차오자 장막불문 지지자승 부지자불승
凡此五者, 將莫不聞, 知之者勝, 不知者不勝.

그러므로 일곱 가지 비교 기준인 ‘칠계’를 따져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

- 첫째, 군주는 어느 쪽에 도가 있는가?
 - 둘째, 장수는 어느 쪽이 유능한가?
 - 셋째, 천지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넷째, 법령은 어느 쪽이 잘 시행하는가?
 - 다섯째, 병력은 어느 쪽이 강한가?
 - 여섯째, 장병은 어느 쪽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
 - 일곱째, 상벌은 어느 쪽이 분명한가?
- 나는 이를 기준으로 승부를 알 수 있다.

고 교 지 이 계 이 색 기 정
故校之以計，而索其情。

왕 주 숙 유 도
曰：主孰有道，

장 숙 유 능
將孰有能，

천 지 숙 득
天地孰得，

법 령 숙 행
法令執行，

병 중 숙 강
兵衆孰強，

사 졸 숙 련
士卒孰練，

상 벌 숙 명
賞罰孰明，

오 이 차 지 승 부 의
吾以此知勝負矣。



장차 나의 계책을 듣고 군대를 쓰면 반드시 이기니
이곳에 머무를 것이다.

장차 나의 계책을 듣지 않고 군대를 쓰면 반드시 지니
이곳을 떠날 것이다.

나의 계책에 이로움이 있다고 여겨 내 말을 듣는다면
유리한 기세가 이루어져 외부에서도 돕게 될 것이다.

기세는 이로운 조건을 만들어 가며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장 청 오 계 용 지 필 승 유 지
將聽吾計, 用之必勝, 留之;

장 불 청 오 계 용 지 필 패 거 지
將不聽吾計, 用之必敗, 去之.

계 리 이 청 내 위 지 세 이 좌 기 외
計利以聽, 乃爲之勢, 以佐其外.

세 자 인 리 이 제 권 약
勢者, 因利而制權也.

전쟁은 속임수다.

능력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쓰면서도 쓰지 않는 척하고,
가까우면서도 먼 척하고, 멀면서도 가까이 있는 척한다.

이로움을 보여 피어내고 어지럽게 만들어 얻어낸다.

적이 충실하면 방어하고 강하면 피한다.

화내면 소란스럽게 만들고

뎀을 낮추면 교만하게 만든다.

편안해하면 수고스럽게 만들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 이간질한다.

방어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장수가 승리하는 방법이니 먼저 드러내거나
알려서는 안 된다.

병자 궤도야
兵者，詭道也。

고능이시지불능용이시지불용근이시지원원이시지근
故能而示之不能，用而示之不用，近而示之遠，遠而示之近。

이이유지난이취지실이비지강이피지노이요지비이교지
利而誘之，亂而取之，實而備之，強而避之，怒而撓之，卑而驕之，
일이로지친이리지공기무비출기부의
佚而勞之，親而離之，攻其無備，出其不意。

차병가지승불가선전야
此兵家之勝，不可先傳也。